

인간과 비인간의 결연담: 그 유형과 의미*

김재용**

<차례>

- I. 서론
- II. 여성과 비인간 남성의 결연: 획득의 이야기
- III. 남성과 비인간 여성의 결연: 화해의 이야기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인간이 비인간과 결연하는 이야기의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이 갖는 차별적 의미를 확보하는 데 있다. 유형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결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이야기를 여성이 비인간 남성과 결연하는 유형과 남성이 비인간 여성과 결연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한다.

여성이 비인간 남성과 결연하는 이야기에서 대체로 여성은 특별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다. 그러한 여인에게 비인간이 접근하는 것은 비범한 초자연적 사건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여성은 비인간 남성과의 결연을 통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뛰어난 영웅이 된다. 따라서 비인간 남성이 신성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다르다. 남성의 실제 정체는 지렁이거나 뱀 혹은 수달 등인데, 이야기는 그 동물들에 대한 신성 표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동물들은 살해된다.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의 힘과 대결하여 승리를 한다. 자연에 대한 인

* 이 논문은 2005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간접 질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성성이 동물이 아니라 식물인 경우에, 인간은 자연에 적대적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

결연 후 남성은 떠나고, 여성은 낳은 아이를 길러 더 큰 세계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서사구조는 동명왕 신화에서 해모수가 결연 후에 떠나고 유화가 주몽을 낳아 떠나보내는 이야기나 유리 모친이 유리를 낳아 아버지를 찾게 하는 이야기의 구조와 흡사하다. 이것은 여성의 세계에서 남성의 세계로 진행되는 입사식의 한 양상을 신화가 언어적으로 수용한 결과인데, 이 유형의 민담은 그러한 신화의 구조를 이어받아 자신의 양식에 맞는 구조로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인물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획득이고, 이것이 이 유형의 이야기가 추구하는 가치로 볼 수 있다.

남성이 비인간 여성과 결연하는 이야기에서 남성은 고립된 처지에 있다. 그러한 처지의 남성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나 일을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미래의 신부를 얻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남성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금기의 파기나 운명론적인 떠남 혹은 이별의 모티프가 추가된다. 그것은 초자연과 자연의 조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민담은 이별과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명으로 남기거나 절을 세움으로써 보다 승화된 차원에서 삶과 죽음 혹은 인간과 비인간을 화해시키고 있다.

고립화된 인물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결연에 이르는 것은 신화적 주인공이 공동체를 떠나 시련을 겪은 후 다시 공동체에 복귀하여 결혼을 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는 이야기 구조와 닮았다. 다만 신화에서 주인공은 공동체를 떠나 역동적 행위가 수반된 모험을 하지만, 민담에서는 고난에 찬 모험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야기의 단순화를 노리는 민담적 변형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민담은 주인공이 공동체를 떠나는 대신 고립화된 인물을 만들어냈다.

주제어 획득(obtain), 화해(reconciliation), 고립화된 인물(isolated person), 비인간 남성과 결연하는 여성(A woman who has sexual relationship with non-human male), 비인간 여성과 결연하는 남성(A man who has sexual relationship with non-human female)

1. 서론

이 글은 인간과 비인간의 결연담¹⁾을 중심으로 이야기 유형의 차별적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흔히 이물교구 혹은 이물교혼담으로 불리는 이 결연담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²⁾. 관심이 오래 된 만큼 드러날 수 있는 이물교구담의 국내 자료들은 거의 다 소개되었으며, 그 분석 결과들도 틈틈이 잘 정리되어 왔다. 그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보고되어 자료는 더 없이 풍성한 편이다. 문제는 분석이다. 어떤 자료를 어떤 시각에서 다루어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왕의 연구들도 새로운 분석 시각이 요청된다고 하면서, 분석의 틀을 만들었지만, 문제는 그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분석의 각도와 결론의 양

-
- 1) 여기에서 결연이란 남녀가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다. 비슷하게 널리 쓰이는 이물교구나 이물교혼은 '이물과 성적인 결합을 하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실제의 작품에서는 명백히 성적 결합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접촉의 수준도 있어 일률적으로 '성적 결합'에 역점을 주기 어렵다. 혼령이나 오이의 존재를 이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비인간이란 용어를 선택한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결연 대신 포괄적인 의미로 결합이란 용어도 사용하며, 성적 결합을 배제한 접촉이나 감염이란 용어도 사용하기로 한다.
- 2) 인간과 비인간의 결연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다. 이미 1939년에 임석재에 의해 이류교혼담으로 명명되어 연구가 시작된 이래 발생론, 유형론 그리고 개별 작품군의 의미론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성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글과 관련해 주목되는 연구는 아래와 같다.

<아래>

강진욱,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어문논집』 11집, 1990.

라인정, 「이물교구설화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8.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서대석,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고찰」, 『고전문학연구』 3집, 1986.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47.

유증선, 「조개색시 구혼민담소고」, 『안동문화』 7집, 1976.

이수자, 「우렁색시형 설화의 연구」, 『이화어문논집』 7집, 1984.

임석재, 「조선의 이류교혼담」, 『조선민속』 3호, 1939.

면에 걸쳐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제시된 결론의 큰 흐름은 이물교구담이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인식하는 관념의 소산이며, 뛰어난 영웅의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탄생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반복될 필요는 없다.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유형론도 마찬가지다. 여러 기준을 만들어 유형을 분류했지만, 결과는 한 작품이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설정된 유형이 어떤 가치를 보이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소재의 공유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된 경우가 많았다. 개별 작품군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는 한층 진전된 성과를 거두었지만³⁾, 결론이 갖는 서사적 의의가 진지하게 물어지고, 그 결과가 다른 작품을 이해할 근거를 마련해 준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이 글은 인간이 비인간과 결합/결연하는 이야기-기왕에 알려진 이야기를 두루 다루려고 한다. 그런 만큼 자료 처리의 위험 부담도 크다. 작품 수도 많고 이본을 포함하면 자료의 양은 더 방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비판적이지는 않다. 유형성을 띤 이야기들이 많기에 실제 작업량은 상당히 줄어들며, 변이가 있어도 서사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의 변개는 없다. 변이는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에서 크게 일어난다. 여러 작품을 묶어 놓고 그 문학성을 따져 가면, 하나의 작품(군)에서 볼 수 없었던 유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논의의 진행은 우선 인간이 비인간과 결합하는 이야기를 두 유형으로 나누기로 한다. 소재가 제시해주는 바에 따라 여성이 비인간의 남성과 결합하는 경우와 남성이 비인간의 여성과 결합하는 경우로 나눈다. 두 유형은 이야기의 전개와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원천에 있어서

3) 기존의 일방 통행적 논리 전개에서 벗어나 이물교혼담을 신화의 신성혼과 관련시켜 논한 다음의 글이 주목된다. 참고) 강진욱, 앞의 논문 및 이수자 앞의 논문.

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작품들에는 당연히 많은 이본이 따른다. 이 글이 단일한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아니기에 그 이본들 전체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전형성을 보이는 주 자료를 선정하고, 논지의 강화를 위해 혹은 논지에 반하는 자료는 따로 소개한다.

<여성과 비인간 남성이 결합하는 이야기>

- 1) 동삼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105번 이야기)
- 2) 차천의 오이 (위의 책, 109번 이야기)
- 3) 최치원 선생 (위의 책, 149번 이야기)
- 4) 지렁이의 아들 (위의 책 111번 이야기)
- 5) 노라치 (위의 책, 309번 이야기)
- 6) 바늘에 찔린 구렁이 (위의 책, 120번 이야기)
- 7) 종소리와 뱀 (위의 책, 256번 이야기)
- 8) 남지(위의 책, 84번 이야기)
- 9) 채씨소 (위의 책, 293번 이야기)
- 10) 도화녀와 비형랑 (『삼국유사』, 권1 기이편, 도화녀와 비형랑조)
- 11) 견훤 (『삼국유사』, 권2. 기이편, 후백제와 견훤조)
- 12) 무왕 (『삼국유사』, 권2. 기이편, 무왕조)
- 13) 밤나무 울범이 (『구비대계』 8-12, 542-551면)
- 14) 구러덩덩신선비 (『구비대계』 4-5, 162-165면)

<남성이 비인간 여성과 결합하는 경우>

- 1) 박동과 용녀 (육신금기 형 이야기, 『구비대계』 6-3. 118-121면)
- 2) 우렁각시 (『구비대계』 4-6, 554-556면)
- 3) 수탉의 유래 (나무꾼과 선녀 형 이야기, 『구비대계』 3-1, 335-337면)
- 4) 잉어 살려 주어서 용녀 얻고 사또 된 숫장수 (방리득보 형 이야기, 『구비대계』 5-2, 101-111면)

- 5) 거타지 (『삼국유사』, 권2 기이편, 거타지조)
- 6) 김현감호 (『삼국유사』, 권5 감통편, 김현감호조)
- 7) 강감찬 (『구비대계』 1-2, 193-202면)
- 8) 웅천 (최상수 앞의 책, 161-162면)

II. 여성과 비인간 남성의 결연: 획득의 이야기

혹은 결혼이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면 굳이 이야기의 형태로 전승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에서 결연의 가치에 주목한 이는 프롭이다. 그는 민담의 형태의 마지막 기능 단위로 결혼을 들었다⁴⁾. 이것은 모험을 끝낸 영웅의 영화로운 귀환을 알리는 단위이며, 입사식의 긴 여정을 마친 영웅이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어른의 상태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표지이기도 하다. 제시된 자료들에서 프롭의 체계와 가장 근사한 작품은 거타지이다.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결연이 작품의 초반이나 중반에 나타난다. 그것은 이야기의 궁극적 관심이 결연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는 결연을 통해 다른 무엇을 말하려고 한다.

결연이 남녀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식의 탄생을 예상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 자식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뛰어난 인물이라면 - 긍정적인 인물이건 부정적인 인물이건 간에 - 탄생에 얽힌 신성한 행적이 가미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그것이 비인간적인 것과 결연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비인간의 결연은 영웅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사적 장치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일단 결연담은 뛰어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셈이다⁵⁾.

4) V.Propp, *The Morphology of Folktales*, (Texas, Texas Univ. Press, 1958), p.36.

5) 비인간과의 접촉을 통해 지식을 얻는 이야기도 있다. 지식을 얻는 이야기는 이 논의

자식을 얻는 것을 획득이라 하면, 그 획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먼저 고구될 필요가 있다.

2-1. 인간인 여성과 비인간인 남성의 결연은 비인간적 존재가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인간계에 접근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 접근은 그 대상이 되는 인간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인간이 기대했던 일도 아니다. 그것은 은밀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자담의 유형에서 이러한 경향은 보편적이다. ‘밤마다’⁶⁾, ‘밤마다 불그스레한 옷을 입은 이름도 성도 말하지 않은 고운 사나이’⁷⁾, ‘밤이 되면 푸른 옷을 입은 젊은 남자’⁸⁾, ‘매일 밤마다 한 아름다운 사내’⁹⁾, ‘어느 해 여름 밤’¹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이름도 시는 곳도 모르는 젊은 청년이 살그머니 들어와’¹¹⁾, ‘이름도 시는 곳도 모르는 예쁜 남자가 매일 밤마다 침실로 들어와’¹²⁾, ‘자줏빛 옷을 입은 웬 남자’¹³⁾, 혹은 ‘몹시 추운 겨울에 우물에 떠있는 오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먹거나’¹⁴⁾, ‘아내가 살그머니 일어나 바람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¹⁵⁾, ‘곱게 생긴 소년이 소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¹⁶⁾, ‘왕이

에서 제외한다.

- 6) <지렁이의 아들>, 전설집, p.170.
- 7) <남지>, 전설집, p.120.
- 8) <채씨소>, 전설집, p.446.
- 9) <동삼>, 전설집, p.157.
- 10) <종소리와 뱀>, 전설집 p.383.
- 11) <노라치>, 전설집, p.468.
- 12) <광적사의 거미>, 전설집, p.474.
- 13) 『삼국유사』, <후백제와 견훤조>
- 14) <차천의 오이>, 전설집, p.166.
- 15) <최치원 선생>, 전설집, p.238.
- 16) <바늘에 찔린 구렁이>, 전설집, p.200.

생시와 똑같은 모습으로'17)라고 하여 어떤 예고됨이 없이 나타난다.

그들은 밤에 출현했다가 새벽이 되면 사라진다. 의견상 그들은 잘 생겼거나 젊고 예쁘다. 하지만 오직 외모만이 제시될 뿐, 성격 등 그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그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다. 밤에만 나타나는 불확정의 존재다¹⁸⁾. 그리하여 인간과 불확정한 존재 사이에 서사적 긴장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 긴장을 푸는 것에 서사는 집중한다.

그 해결은 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컨대 부모거나 가까운 친지들의 조언에 의해서이다. 그리하여 드러난 존재의 감춰진 본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온전히 인간의 예지에 의해서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남자의 옷에 바늘을 꽂아 실로 연결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바늘이 갖는 의의가 물어질 필요가 있다.

바늘의 이야기는 동명왕신화에서도 나온다. 주몽이 금와왕의 명령에 따라 마구간에서 말을 칠 때, 가장 좋은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았다는 기록이 있다¹⁹⁾. 주몽은 그 말을 취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말의 혀에 바늘이 꽂아 먹지 못하여 비루한 말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 결국 주몽은 그 말을 얻었다. 대단한 트릭이다. 말의 혀에 바늘을 꽂은 것은 말의 성장을 방해한 일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금와왕의 왕권에 대한 도전 혹은 왕의 거세와도 맞물려 생각할 수 있는 행위이다. 결국 주몽은 말을 얻어 부역을 탈출함으로써 금와왕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최치원 선생> 이야

17) <도화녀와 비형랑>

18) 그러나 <도화녀와 비형랑> 이야기에서 왕의 존재는 별다르다. 그는 이레 동안 도화녀의 집에 머물렀으며, 신분도 확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예외성은 이 이야기가 서사자에 의해 상당히 각색되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19)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3권, 동명왕편.

“긴 채찍을 때리니……(중략)……한 마리 붉은 말이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 넘었다. 주몽은 이 말이 준마임을 알고 가만히 바늘을 혀 밑에 꽂아 놓았다.”

기에서도 밤마다 사또의 부인을 납치해 간 약탈자를 잡기 위해 사또 부인의 치마에 실을 묶은 바늘을 꽂아 둔다. 과연 밤에 나타난 약탈자가 부인을 납치해 가지만, 사또는 실을 따라 약탈자인 금돼지를 살해한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테세우스는 마노타우로스를 퇴치하고 미리 연결해 두었던 실을 따라 미궁을 빠져나온다. 바늘과 실은 진실의 발견 내지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인간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바늘과 실을 사용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여인은 조력자의 조언에 따라 남자의 옷에 바늘을 꽂는다. 이제 남성은 여성의 포로가 된 것이다. 의미망을 넓히면 비인간계의 감추어진 힘이 인간의 트릭에 포박당한 셈이다. 그리하여 그 힘은 지렁이, 뱀, 수달 등 측정 가능한 동물로 현시된다. 이 동물들은 물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선불리 그것을 신성성의 근거로 보기는 쉽지 않다. 이야기의 전승자들은 이 동물들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아래자담으로 알려진 견훤 전승에서도 아래자의 정체성이 지렁이로 밝혀진 뒤, 그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와 후에 밝혀지는 지렁이 사이의 거리는 크다. 그 둘 사이를 고양시켜 연결해 줄 만한 지표단위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인간으로 변신했을 때는 훌륭한 남자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렁이에 불과했다는 폄하가 끼쳐져 있다. 고려 왕조를 살았던 일연이 고려를 위협했던 견훤을 높이 평가할 이유도 없다. 만일 지렁이의 변신을 비범하면서도 신성한 일로 간주했다면, 그 지렁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술하는 것이 옳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박혁거세의 알이 모셔짐을 받았고, 유폐된 유화에게 햇빛이 따라다니면서 비추듯. 그러한 방식으로 신화는 신성의 징표를 보인다.

그러나 견훤 전승은 그런 뒤처리가 전혀 없다. 이것은 견훤에 대한 역

사적 평가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영웅이기는 하되, 결국 실패한 인물이다. 뛰어나기는 했으나, 그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를 역적으로 볼 개연성도 많다. 그의 영웅성과 아울러 그에 대한 증오, 이러한 이중적 정서가 그 전승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견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야기에서는 견훤이 지령이의 자식이란 한계 때문에 군사작전에서 실패했다고 진단 한다²⁰⁾.

무왕도 어머니가 교룡과 결연하여 탄생한다. 하지만 그는 역사의 향방을 결정지를 만든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논란은 거의 없으며, 민간전승도 그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하지 않고 비교적 단선적 흐름을 유지한다. 이야기는 과부인 어머니가 교룡과 관계하여 무왕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적시할 뿐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도 교룡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니, 부정적 인식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 비인간의 후예이며, 그것에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신성함이란 징표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른 아래자 전승에서는 비인간과의 결연이 퇴치되어야 할 부정적 사실임을 보인다. 그리하여 아래자의 정체 를 밝히는 순간 그를 죽인다. <종소리와 뱀>, <동삼>, <노라치>, 그리고 <바늘에 찔린 구렁이> 등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정체가 드러난 아래자를 죽인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없다. 변신하는 동물을 신성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퇴치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20)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전승되는 이야기에서는 견훤의 몰락을 지령이의 아들에서 찾고 있다. 그러기에 지령이 혹은 지령이의 아들에 신성함이 끼쳐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야기의 내용은 고려와 후백제가 고창 전투에서 격돌했을 때, 고려 군대가 견훤이 지령이의 아들임을 알고, 지령이가 소금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냇물에 소금을 뿌려 견훤의 군사력을 소진시켰다고 한다.

참고) 라인정, “견훤설화의 구비전승상의 변이와 특성”, 『한국언어문학』 45집, p.62.

정체를 밝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래자의 습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종소리와 뱀>에서 밤에 찾아온 남자는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 나간다. 김좌수의 딸은 종지기에게 부탁하여 종을 울리지 않게 하였고, 남자는 종소리가 나지 않자 날이 밝을 때까지 있다가 아침 햇빛이 창문에 비치자 뱀으로 변하여 도망갔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아래자의 비범성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햇빛을 보면 놀라 달아나는 동물일 뿐이다. 이러한 아래자에 대한 철저한 폄하는 문헌에 실린 옛 자료보다는 근자에 수집 보고된 구비전승의 자료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며, 이것은 후대에 오면서 과거에 그럴 것으로 믿어졌던 비인간의 인간으로서의 변신이 전혀 사실일 수 없다는 민담적 반격이다.

그러한 면은 <최치원 선생>에서도 지속된다. 아래자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여인을 찾아와 동침하고 가지만, 최치원의 탄생담에 나오는 금돼지는 여인을 아예 약탈해 간다. 약탈 유무의 차이가 있지만, 두 이야기는 같은 유형에 속한다. 이 이야기에서도 금돼지는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한다. 금돼지가 부정적인 존재를 비쳐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치원의 훌륭한 여전히 인정된다. 비록 부정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변신하는 동물의 자연적 힘이 최치원에게 전이되었으리라는 뜻이다.

신성의 징표가 분명한 이야기도 있다. <도화녀와 비형랑>의 이야기는 신성함의 징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왕이 여인의 집에 와 머무를 때 ‘항상 오색구름이 지붕을 감싸고 방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하여 신성성을 보인다. 그리고 비형의 탄생에도 ‘달이 차 곧 해산하려고 하자 천지가 진동하였다’고 비범한 정황을 기술한다. 여인을 찾아온 왕은 죽음의 영역에서 왔고, 그에게는 신성의 표지를 붙여주었다. 아래자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표지이다. 살아있는 동물의 변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삶과 다른 영역에서 온 존재에게는 신성의 표지를 달아준 것은 이채롭다. 삶의 세계에서

변신과 같은 것은 괴이하고 불결한 일이지만, 죽음의 세계는 이승과 다르다는 관념을 보인다 하겠다. 왕은 이례를 머문 후에 홀연 사라졌다고 했다. 스스로 인간계를 벗어나 죽음의 영역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행적의 명료성은 비록 비인간계와 인간계가 결연하기는 했으나, 그 영역을 엄격히 구분했다는 사실을 노정한다.

<차천의 오이>는 신성함은 아니어도 비범한 일을 보인다. 겨울에 오이가 우물에 떠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먹은 여인은 후에 크게 될 스님을 탄생시킨다. <나무도령>도 비범한 일을 보고한다. 밤나무 아래에서 오줌을 싸는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이다. 거기엔 나무의 정령에 의한 감염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두 이야기에서 여인들은 드러나지 않은 남성성과의 접촉이나 감염에 의해 아이를 갖는다. 그 남성성이 동물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그 외 어떠한 정보도 서사는 주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인간이 접근할 수도 없다. 그런데 뛰어난 고승을 낳았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그 힘이 신성함을 말한다. 알 수 없는 힘과의 접촉이나 감염의 이야기는 중국의 삼황오제 등의 탄생담에 많이 나온다. 강원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서 기를 낳았다고 했다.

2-2. 아래자 이야기 유형에서의 여성들에게는 일정한 외적인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얼굴이 예쁜 처녀’, ‘고을 원님의 아내’, ‘혼자 사는 과부’ 그리고 ‘과년한 딸’ 아니면 ‘부자의 외동딸’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들은 결코 독특하지 않는 평범한 수준으로, 실제 작품들에서 그 조건들은 비인간적 존재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도요인이 되지 못하며, 그 역시 일회성으로 주어진 것일 뿐 이후의 서사진행에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다. 또 그녀들은 내적인 욕망이나 성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여인들이다. 다만 비형량에서는 여인의 미모를

있지 못하는 왕이 죽은 후에 혼령이 되어서 다시 그녀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미모가 비인간과의 결연을 하게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특별한 외적 조건이 결연을 촉발시킬 요인이 되기는 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성에 초점이 두어질 일이다. 비인간의 존재가 미리 지정된 여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에게든 그러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이야기는 누구에게든 그러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한 사실은 여성의 익명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전승된 민담의 어디에도 여성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떤 처녀 혹은 누구의 딸 혹은 과부라 했을 때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지칭된 것이며, 이것은 일반성을 상징한다. 일반성은 특별한 국면을 제외한다. 따라서 일반적 사람의 누구에게도 비인간과의 접촉이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민담 속의 여인들은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 압도당하면서도 놀라거나 긴장하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아니면 몇 달 전부터 남자가 찾아와 동침했으나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일은 없다. 최치원의 모친은 금돼지에게 납치당해 갔지만, 그 다음 날 찾아간 남편에게 전혀 동요함이 없이 ‘도적은 지금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는 때로는 사람으로 보이니 돼지올시다.’²¹⁾라고 침착하게 말한다. 그러나 여인들은 정작 임신을 하면서 태도의 변화를 보인다. ‘부끄러워’, 혹은 ‘놀라워서’ 자신의 일을 부모에게 알린다. 혹은 부모가 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강탈자의 정체를 추적하는 것이다.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고도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존재의 차원이 다른 비인간과의 교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하면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21) <최치원 선생>, 최상수, 앞의 책, p.238.

당황하는 것은 한국의 이야기가 윤리적인 선악의 문제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면모는 진각국사의 탄생을 다룬 <차천의 오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처녀가 오이를 먹고 임신하자, 부모는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먼저 부모들은 태어난 아이와 딸을 딴 집으로 보내 지내도록 한다. 보름 쯤 지났을 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아이를 멀리 떨어진 수풀 속에 버린다. 며칠 후 그들이 아이를 확인하러 갔을 때 새들이 보호하고 있음을 본다. 신성함의 징표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를 데리고는 왔으나 다시 고민에 빠지고, 그리하여 그들은 일부러 아이를 수풀에 놓은 후, 능주의 친척집에 머물다 동네 사람들과 길을 오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면 숲으로 들어가 ‘어떤 몹쓸 사람이 이런 곳에 아기를 내다 버렸을까……(중략)…… 우리는 자식이 없으니까 데려다가 길러 보자’²²⁾하고 아기를 거둔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딸의 자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이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부정한 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아기를 탄생시키는 여성의 행동반경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주인공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먼 곳을 여행하거나 모험을 수행하는 것과 전혀 반대다²³⁾. 여기에서의 여성은 자기가 있던 자

22) <차천의 오이>, 최상수, 앞의 책, p.168.

23) 제주도의 무속신화인 <초공본풀이>나 <문전본풀이> 혹은 <새경본풀이> 등에서는 여성이 남편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한다. 성공적인 여행으로 인해 여성은 신이 된다. 그러나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구렁이 신랑>이 있다. 아내는 언니들이 남편의 구렁이 허물을 태운 후, 남편이 떠나자 남편을 찾기까지 갖은 시험과 고난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여행이 수반되며, 여성의 주체적 의지가 돋보인다.

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아이를 갖고 낳으며, 그 이후에 어디로 이동했다는 말은 없다. 또 자신이 혼자서 일을 해결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비형량의 이야기를 보면, 죽은 왕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한 약속이 있음에도 부모의 허락을 받은 후에 왕과 동침하기에 이른다. 여성은 제한된 위치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아기를 탄생시킨 이후, 그녀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 아기의 탄생에 관여했을 뿐, 서사에서 그녀의 기능은 그것으로 끝난다.

<구렁이 신랑>은 지금까지 다룬 작품과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은 매우 적극적이다. 뱀과의 혼사임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으며, 남편을 찾아 과감하게 고난이 수반된 여행을 감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여성은 자식을 낳지만, 구렁이 신랑의 아내를 낳은 일도 없다. 남편의 신분이 감춰진 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구렁이로 나타난다. 다른 이야기에서 볼 수 없는 금기사항도 제시되고, 그것이 언니들에 의해 파기됨으로써 고난이 시작된다. 비록 혼인하기는 했으나,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극복하여 완벽한 결혼에 이른다는 혼사장에 답²⁴⁾의 양상을 보인다. 물론 서동이나 온달처럼 남녀 신분의 차이, 장애의 극복 방법은 다르지만, 여성의 주체적인 노력이 서사의 추진축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여기에서도 신성에 대한 표징은 없다. 민담의 여러 가지 흥미를 유발할 장치들이 도입된다. 설정은 여자와 구렁이의 결연이지만 실제 서사 진행은 다음에 볼 남자와 비인간의 여성이 결연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전승자는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여 민담적 흥미를 배가시켰다.

2-3. 아래자 이야기에서 변신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다. 그

24)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 연구』, (서울, 일조각, 1973), p.145.

것은 아래자가 밤에 여인과 결합을 하고 떠난다는 것이다. 밤과 떠남이다. 밤이라는 시간적 조건은 민담이 은밀한 사건을 진행시킬 때 사용하는 서사적 장치다. 어두운 밤은 현존재의 모습을 감추는 배경적 의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동요에서도 밤의 결연이 나온다. 선화공주가 밤에 몰래 서동과 만난다고 했다. 민담은 밤이 남의 이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립된 시간임을 안다. 그러나 신화에서 밤은 별로 중요한 조건이 못 된다. 단군신화나 주몽신화에서 결연은 밤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떠남이다.

환웅은 웅녀와 결합한 이후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 후에 웅녀는 단군을 낳았고, 단군은 성장하여 고조선의 건국주가 된다. 동명왕신화에는 두 번의 결혼이 나온다. 하나는 해모수와 유화의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주몽과 유리의 모친 사이인데, 두 번의 결혼에는 일정한 서사적 공통점이 보인다. 먼저 남성은 여성을 찾아와 결연을 시도한다. 물론 이 결연은 불법적인 야합이며, 이것으로 인해 해모수와 하백 사이에 혼사장애의 극복을 위한 변신술 쟁투가 있다. 남녀가 관계를 맺은 후, 남성과 여성은 분리된다. 분리의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징표를 주기도 한다. 유리의 모친에게 단검을 남긴 주몽이 그러하다. 동명왕 신화에서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 제주도의 <초공본풀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남자승이 자지맹왕아기씨를 찾아가 결연을 맺고 떠난다. 후에 자지맹왕아기씨는 아들 삼형제를 낳아 세상에 내보낸다. 남승과 아기씨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그리스의 테세우스신화도 그러하지만, 만주족 신화에도 보인다²⁵⁾. 신화에서 남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거나 정체를 끝까지 밝

25) 만주족의 시조를 낳은 불고륜은 백두산 천지에서 목욕하다 새가 떨어뜨린 붉은 과일을 먹고 아들을 낳아 물길을 따라 더 큰 세상으로 보낸다. 참고) 김재용, 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서울, 동아시아, 2001), p.168.

하지 않는 신성한 존재 혹은 하늘과 관련 있는 인물이지만, 여성과의 결합 이후에는 일단 서사의 전면에서 사라진다. 동명왕신화에서는 유화가 금화에 의해 유폐되었을 때, 햇빛이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하여, 해모수의 존재가 은유적으로 나타나 있다. 유리 왕자 이야기에서 동명왕이 유리와 만나게 된다. 만주족의 기원신화에서는 남성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눈여겨 볼 것은 여성인 어머니의 존재다. 여성은 남성이 떠난 후, 홀로 자식의 양육을 맡아 세상으로 내보낸다. 물론 그 세상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며 남성의 세계이다. 이와 같이 보면, 이러한 구조의 신화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아이가 아버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신화는 그 과정에 입사식의 엄격한 과정이 보인다. 유리가 거친 일련의 의식이 그러하다²⁶⁾.

민담에서도 비인간인 남성은 여성과 결연을 맺은 후 떠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몫은 온통 여인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여인은 아이를 키워 세상에 내보낸다. 그 인물이 견훤이나 무왕 그리고 최치원이나 길달 아니면 청나라를 건국한 청태조의 아버지와 같은 뛰어난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과 비인간의 결연담에서는 신화에서 보이는 입사식의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민담이 인물의 탄생에만 관심을 집중한 탓이다. 탄생한 이들은 이미 역사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러기에 이야기가 청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사실의 실재를 주장할 현실적 문맥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이러한 일련의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보면, 신화 특히 동명왕신화에서의 결연담이 이후 아래자형 민담의 형성에 원형적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화에서의 신성성은 현저히 퇴화되어, 실체가 드러난 비

26) 유리가 아버지 주몽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개의 관문이 있다. 수수께끼 풀기와 단검 찾기 그리고 하늘을 뛰어 오르는 행위이다. 이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유리는 태자로 책봉을 받는다.

인간은 무시되거나 처단당하는 운명을 겪는다.

Ⅲ. 남성과 비인간 여성의 결연: 화해의 이야기

3-1. 남성이 비인간의 여성과 결연하는 이야기는 한 남성에 대한 짧은 정보를 주면서 시작한다. ‘원성왕 대에 화랑 김현이 밤이 깊도록 혼자 쉬지 않고 탑돌이를 하다’²⁷⁾, ‘군사 가운데 거타지라는 사람의 이름이 물속으로 가라앉아’²⁸⁾, ‘어느 총각이 나이가 많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아’²⁹⁾, ‘해남에 박 씨라는 사람이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살아’³⁰⁾, ‘옛날에 한 사람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³¹⁾, ‘옛날에 나무장사가’³²⁾, ‘강감찬의 아버지가 늙도록 자손이 없어 고민’³³⁾ 등이 그렇다. 주어진 정보들은 일반적이 아니라 특정되어 있다. 주인공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나 위기적 상황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적 소망을 가진 이들로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른바 고립화된 인물이다³⁴⁾. 하지만 고립화된 인물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어떠한 기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산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 신부감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³⁵⁾. 노총각,

27) <김현감호>, 『삼국유사』.

28) <거타지>, 『삼국유사』.

29) <수탈의 유래>, 『구비대계』 3-1, p.335.

30) <박동과 용녀>, 『구비대계』 6-3, p.118.

31) <우렁 각시>, 『구비대계』 4-6, p.554.

32) <잉어 살려주어서 용녀 얻고 사또 된 숲장수>, 『구비대계』 5-2, p.101.

33) <강감찬 이야기>, 『구비대계』 1-2, p.193.

34) 막스 루티, 『유럽의 민담』, 김홍기 역, (서울, 보림출판사, 2005), p.69.

35) 홀어머니의 존재는 남성 주인공의 고립화를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장치다. 왜냐하면 홀어머니는 굳이 등장시키지 않아도 될 인물이지만 -실제 작품의 이본들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주인공의 위기적 상황을 배가시키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머슴 등은 민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립화된 인물의 전형적 표상이다. 반드시 산골에 거주하는 인물만이 아니다. 거타지는 중국으로 가는 도중 혼자만이 섬에 남게 되어,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제한되어 있다. 김현은 탐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고, 강감찬의 아버지는 점쟁이를 찾아가 아이 얻을 방도를 묻는 수준에 그친다³⁶⁾. 여기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한다. 고립된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그에 반응하면서 서사적 사건이 발생한다. 그 사건은 물론 여성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것이다.

여성과의 만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제 3자의 개입으로 다른 하나는 남녀가 직접 만난다. 먼저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이야기는 <수탉의 유래>, <박동과 용녀>, <잉어 살려주어서 용녀 얻고 사또 된 숯장수>, 그리고 <거타지>이다. 제 3자는 장차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파견자이면서 동시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 여인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나무꾼과 선녀>는 호주를 제외한 세계의 전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어느 한 지역의 이야기가 전파에 의해 퍼진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전승도 혼란스럽다³⁷⁾. 신화의 형식을 유지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전설이나 민담

<나무꾼과 선녀> 유형만을 제외하면, 다른 작품들에서 홀어머니는 고립화를 위한 선택적 인물로 나올 뿐, 이후 서사진행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36) 강감찬의 아버지는 뛰어난 아들을 얻기 위해 문복을 한다. 점쟁이는 999명의 여자와 허위로 관계를 맺고 1,000번째 여자와 관계하면 대인을 낳을 것이라고 한다. 강감찬의 아버지는 돈을 가지고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며 여자를 만난다.

참고). <강감찬 이야기>, 『구비대계』 1-2, p.193.

37) 손진태는 천상의 선녀가 백두산 천지에서 목욕하다 날아가던 새가 떨어뜨린 붉은 과일 먹고 만주족의 선조인 쿠부리웅순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부리아트 족의 기원을 설명한 <나무꾼과 선녀> 전승의 일부로 파악한다. 목욕하는 선녀가 한 종족의 선조

으로 구연되는 전승물도 많다. 전승되면서 다양한 결말 처리가 나타난다. 선녀가 떠난 후, 나무꾼도 하늘에 올라가 가족과 결합하여 살았다는 결말, 아니면 하늘에 올라간 나무꾼이 지상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좌절했다는 결말은 전혀 다르다. 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짐은 당연하다³⁸⁾.

초반 부분에도 크지는 않지만 변개는 있다. 그것은 선녀 옷을 어떻게 훔쳤느냐인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직접 훔쳤다는 것과 위기에 몰린 사슴을 숨겨주어 선녀의 옷을 훔치게 되었다는 변이다³⁹⁾. 신화로 전승되는 이야기들에서는 사슴과 같은 중재자가 안 보인다⁴⁰⁾. 그러나 민간전승으로 구연되는 이야기에서는 거의 중재자가 등장한다. 이것은 <춘향전>에서 방자의 출현과 같다. <춘향전>의 초기본에서는 방자라는 존재가 없다. 이도령과 춘향을 중재하는 것은 청조다. 그러나 후대본에 오면서 방자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이도령과 춘향 사이를 오가며 서사적 흥미를 돋운다. 마찬가지로 <나무꾼과 선녀>에서도 신화에 없던 중재자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단선적 흐름에서 벗어난다. 신화에서는 신성과 세속이 직접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지만, 전설과 민담에서는 중재자를 통해 신성과 세속이 이어지는 구조를 갖는다. 현실생활에서의 은혜와 보은 그리고 속임수와

를 낳다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목욕’과 ‘선조를 낳다’를 조금 변형시키면, 이 전승은 동명왕 신화에서 웅심 물가에서 놀던 유화가 해모수와 결합하거나, 물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오이를 먹고 임신하여 큰 인물을 낳았다는 이야기와도 같이 묶일 수 있다. 이 점은 이 글의 목적과 다르기에 따로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 손진태, 앞의 책, p.198.

38)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 나타난 가족의식 연구」, 『한국민속학보』 17집, 1994, p.17. 이 글에 따르면 후반부는 무려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39) 부리아트 족의 기원을 알리는 신화에서는 나무꾼이 직접 날개옷을 훔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설과 민담으로 전승되는 구연물에서는 위기에 몰린 동물을 구조하고, 그 보답으로 날개옷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 손진태, 앞의 책, p.196.

40) 이에 관한 자료는 손진태, 앞의 책, pp.193-198 참조.

우매함 등이 전승물에 끼어들면서 신화는 전설과 민담의 형식으로 세속화 된다.

나무꾼을 선녀와 결합하게 한 중재자는 사슴을 비롯한 동물이다. 고립된 인물인 나무꾼 앞에 갑자기 사냥꾼에게 쫓긴 사슴이 나타나 도움을 요청한다. 물론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는 선한 행위를 베푼다. 주인공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이야기의 유형적인 성격에서 보면, 주인공은 반드시 그러한 관용과 의로운 용기를 베풀도록 민담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늘 관대하며, 경쟁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은혜를 입은 사슴은 이제 나무꾼을 고립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선녀의 옷을 훔쳐 결혼하도록 한 것이다.

<잉어 살려주어서 용녀 얻고 사또 된 숫장수>는 자신이 잡은 잉어를 살려주는 관용을 베푼다. 그 보답으로 잉어는 숫장수를 용궁에 데리고 가 용녀를 아내로 맞게 한다.

<거타지>에서 거타지는 서해 약의 요청대로 사미를 물리치고, 그 보상으로 신부를 얻는다. <고려신화>에 나오는 작제건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박동과 용녀>도 주인공이 서해의 청룡의 부탁을 받아 동해의 황룡을 물리치고 신부를 얻는다. 주인공들은 이제 고립의 상태를 벗어나고 신부를 증여받음으로써 새로운 상황으로 진입한다.

주인공 남성이 중재자의 개입 없이 여성을 만나는 이야기는 <김현감호>, <웅천>, <우렁 각시> 그리고 <강감찬>이다. 여기에서의 주인공 남성들은 참으로 우연한 기회에 여성을 만나게 된다⁴¹⁾.

주인공들은 제 3자가 개입되는 이야기처럼 용기나 관용성을 보일 사건

41) <김현감호>의 김현은 탐돌이를 하다 호녀와 만나며, <웅천>에서 남성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곰여인과 만나게 된다. <우렁 각시>의 남성은 소리 나는 곳을 주목하다 우렁을 발견한다. <강감찬>에서는 강감찬의 아버지가 길에서 여우 여인을 만난다.

을 만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부를 증여받거나 하는 절차가 없다. 주인공은 신부를 직접 만난다.

<우렁각시>에서 남성은 산골에 사는 노총각이다. 장가를 들고 싶지만, 가난하여 신부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그에게 스스로 천상에서 내려왔다는 우렁 속의 여인이 나타난다. <김현감호>는 김현은 화랑으로 탐돌이를 하다 한 여인을 만나 사통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은 호랑이었다. <웅천>의 사냥꾼은 길을 잃고 헤매다 꿈 여인을 만나 같이 살게 된다. <강감찬>에서 강감찬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여우를 만나 사통을 한다.

주인공은 신부를 얻어 고립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거타지는 용녀를 얻어 중국까지 가서 천자의 환대를 받고 신라로 귀환한다. 숫장수는 용녀의 도움으로 사또까지 된다. 우렁 각시와 결혼한 총각도 행복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민담이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주인공은 신부와 이별하게 된다. 이별을 만들기 위해 민담은 여러 장치를 구사한다. 잘 알려진 장치는 금기의 제시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파기된다.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날개 옷을 주면 안 된다’⁴²⁾. ‘목욕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⁴³⁾, 등이다. 김현은 호녀가 호랑이죽을 위해 스스로 희생의 길을 택하기에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된다. 혹은 예정된 수순이 없으면 서사적 요청에 의해 그들은 헤어진다. 그들이 헤어져야 이야기의 극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의 거리를 명확히 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냥꾼은 집에 가고 싶어서 혹은 여인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서 도망쳐야만 한다. 여우는

42) <나무꾼과 선녀>, 손진태, 앞의 책, p.193.

43) <박동과 용녀>, 『구비대계』, 6-3, p.121.

강감찬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주고 스스로 사라져야 한다.

3-2. 이 유형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의 위상은 다양하다. 인간 여인과 결합하는 남성은 본래 동물이 대부분이고 죽은 혼령도 있었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는 호랑이나 곰과 같은 동물도 등장하지만, 능력에 있어 인간보다 상층에 속하는 선녀 혹은 용녀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야기에 따라 그녀들은 수동적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행위를 한다. 거타지 이야기에 나오는 용녀는 지극히 수동적이다. 투쟁을 승리로 이끈 거타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크다. 그녀를 제외하면,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면서 세상살이에 적극 대처한다. 용녀는 남편에게 목욕하는 자신을 보지 말라는 금기를 내리기도 하고, 뛰어난 지략으로 적을 물리친다⁴⁴⁾. 호녀는 종족을 위해 자신이 기꺼이 죽어야함을 알리고, 김현에게 자기를 죽일 것을 요청한다⁴⁵⁾. 곰여인은 남자를 동굴에 가두어 두고, 자신이 사냥하여 남자를 먹여 살린다⁴⁶⁾. 남자의 일을 여자가 하고, 남자는 여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우는 적극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아이를 갖는다⁴⁷⁾. 여성성이 남성성의 우위에 있고, 만남 이후는 여성이 남성을 지배한다.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모성애를 발휘하지 않는다. 결합을 했으니, 자식을 낳았지 자식을 얻기 위해 혹은 자식의 탄생이 이야기의 첫 번째 가치는 아니다. 그리고 그 결합으로 태어난 자식들도 강감찬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기도 하나, 그것은 예외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태어난 자식

44) <남편을 가르친 우렁 색씨>, 『구비대계』 5-3, pp.415-421.

45) <김현감호> 이야기에서 호녀는 오라비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하며, 김현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요청한다. 『삼국유사』, <김현감호> 참조.

46) <웅천>, 최상수, 앞의 책, p.163.

47) <강감찬 이야기>, 『구비대계』 1-2, p.202.

들은 결코 뛰어나지 않으며, 성장하여 탁월한 업적을 쌓는 그런 인물도 아니다. 가령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에서 선녀는 아들을 낳지만, 그들은 양성 결합의 산물로 태어난 아이들일 뿐이다. 이본에 따라 아이가 셋, 넷 혹은 다섯으로 다양한 것은 아이가 많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할 뿐, 수효가 갖는 의미는 없다. 거타지 이야기에서는 아예 자식의 탄생이 안 보이고, 웅천 이야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아니면 꿈에 의해 살해될 뿐이다. 신화에서처럼 태어난 아이가 한 종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등의 언급이 없다. 자식에게는 서사적 기능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김현과 호녀는 아이를 가질 시간도 없었다.

선녀와 용녀는 각기 하늘과 용궁으로 되돌아가지만, 호랑이와 꿈은 그렇지 못하다. 둘은 죽는다. 꿈은 신화에서부터 잘 알려진 동물이다. 악륜춘족의 기원을 말하는 신화는 아마도 <웅천>의 원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 꿈을 보았다.
- 2) 화살을 두 번 쏘았으나, 꿈을 맞추지 못하고, 도리어 꿈에게 잡혔다.
- 3) 꿈이 부상당한 사냥꾼을 치료하고 동굴로 데려갔다.
- 4) 암꿈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새끼를 낳았다.
- 5) 암꿈은 동굴의 문을 막고, 새끼들과 사냥을 나갔다.
- 6) 고향을 잊지 못한 사냥꾼이 돌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 7) 암꿈이 쫓아왔으나, 사냥꾼을 잡을 수 없었다.
- 8) 암꿈이 새끼를 찢어 반은 사냥꾼에게 던지고, 반은 자기가 가지고 갔다.
- 9) 암꿈과 생활하던 반은 꿈이 되고, 사냥꾼과 생활하던 반은 악륜춘족이 되었다⁴⁸⁾.

48) 김재용, 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서울, 동아시아, 2001), pp.318-319.

이야기의 핵심은 꿈과의 결연과 이별이다. 사냥꾼은 나무 등걸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꿈이었다고 했다. 이내 사냥꾼은 꿈에게 납치되어 동굴에게 동거하게 된다. 인간이 꿈과 직접 결연을 한 것이다. 꿈과 인간을 같은 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꿈이 인간이고, 인간이 꿈이다. 그러한 사유를 전제해야 인간에게 던진 꿈 새끼들이 악룡춘족의 선조가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신화에서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간극도 있지 않다. 여기에서 비인간은 꿈이라는 동물이니, 인간과 자연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하지만 사냥꾼은 고향이 그리워 인간 세상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마침내 성공한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분리가 영속적이지는 않다. 사냥꾼에게 던져진 꿈 새끼들이 자라 악룡춘족의 선조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냥꾼과 꿈이 현상적으로 분리되기는 했으나, 결국 악룡춘족의 변성으로 들은 상징적인 재결합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종족의 기원을 알리는 신화가 퇴화되어 전설의 형식으로 전승되면서 변모가 일어났는데, 신화적 질서를 따라가면서도 현실적 인식이 강화된 방향으로 변모했다.

1)에서 인간은 꿈을 만난다. 전설에서도 이 만남을 신화에서 보인 그대로 묵수하는 이본이 있는데, 이것은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재생하면서 지명전설로 변환시킨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꿈이 도망가는 남자를 향해 아이를 던졌다고 했는데, 신화와는 달리 전설에서는 그 던짐의 서사적 의미를 확충할 단서가 전혀 없다. 신화에서는 그 던져진 아이가 한 종족의 선조로 성장했다고 했지만, 전설에서는 던져진 아이는 돌처럼 던져졌을 뿐이다⁴⁹⁾. <나무꾼과 선녀> 유형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인다.

49) 위의 책, p.331.

신화에서는 선녀가 아들 하나를 남기고 간다. 그 아들이 후에 부리아트족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담으로 전승되는 자료에서는 선녀가 아이를 다 데리고 간다. 그 이후에 자식들이 담당하는 서사적 기능은 전혀 없다. 단순히 나무꾼과 선녀가 자식을 낳았고, 그만큼 상호신뢰감이 형성되었으며, 날개옷을 건네 줄만큼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리는 지표 단위일 뿐이다.

그런데 <웅천> 이야기에서 분명한 변모를 보이는 이본이 있는데, 이것이 전설적 변모의 기본 방향이다. 신화에서 당연시되었던 관념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꿈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설에서 사냥꾼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한 여인을 만난다고 했다. 물론 그 여인은 꿈이 변신한 인물이다. 사냥꾼은 꿈이 아니라 인간 여인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냥꾼은 여인이 꿈이라는 우연히 사실을 알고 도망친다. 꿈이 쫓아오기는 했으나, 사냥꾼을 잡지 못했고 결국 물에 빠져 죽는다. 그 이유로 꿈이 죽은 곳을 웅천이라 한다고 했다⁵⁰⁾. 사냥꾼이 도망친 이유는 여인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이다. 인간의 눈에 비친 꿈의 변신은 비현실적인 사건이며,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변괴였다. 그 이유로 사냥꾼은 도망친다. 여기에서 지명의 명칭이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비록 사냥꾼과 꿈은 현실적으로 헤어졌지만, 지명을 붙여 기억하게 함으로써 둘 사이를 상징적으로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합은 <나무꾼과 선녀>에서도 보인다. 헤어진 선녀와 다시 만날 수 없는 나무꾼은 수탉이 되어 운다고 했다. 이러한 결말 처리는 헤어짐을 내면적으로 승화시켜 더 상승된 차원에서 나무꾼과 수탉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감호>에서도 김현과 호녀는 하루 밤의 인연을 끝으로 영원한 이

50) 최상수, 앞의 책, <웅천> 이야기

별을 맞는다. 호녀는 종족의 보존을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하루 밤의 인연을 맺은 김현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한다. 그리고 절을 세워 자신의 혼을 위무해 줄 것을 요구한다. 김현은 호녀의 요청대로 행했고, 그로 인해 지위를 얻었고, 절도 세웠다. 절을 세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웅녀나 호녀가 등장한 이야기가 모두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지명으로 남겨진 절을 세운 것은 삶과 죽음으로 갈린 부부의 정을 한 단계 높게 승화시켜 화해시킨 예가 될 것이다.

3-3. <나무꾼과 선녀>, <웅천> 그리고 <박동과 웅녀>와 같은 육신금기류의 이야기는 이미 신화의 형식으로 전승된 것도 있고, 그것이 세속화되면서 전설이나 민담의 형식으로 전승된 것도 있다. 다른 전승들도 신성한 존재와 경이로운 일을 서사에 배치하여 신화의 신성성을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마찬가지다. 이 유형에서 남자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거나 상대방에게 선한 행위 등을 함으로써 자신보다 차원이 높은 비인간의 여인과 결연한다. 그 과정은 신화적 주인공이 행한 행위를 연상시킨다. 신화적 주인공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험이 수반된 여행을 한다. 그리고 귀환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결혼을 한다. 이른바 분리 - 시련 - 귀환이라는 단원신화⁵¹⁾의 구조를 보인다. 민담에서도 그러한 서사진행은 마찬가지다. 프롭이 제시한 민담의 형태는 크게 잃어버린 공주를 찾아 떠나는 주인공의 분리가 있고, 악마를 퇴치하는 시련 그리고 고향에로의 영광스러운 귀환이 있다. 우리의 경우, 고소설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발견된다. 이른바 적강소설류에서 주인공이 천상에서 분리되고, 지상에서 시

51) J.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New York, 1968, p.30.

련기를 거친 후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지상계에서의 생활도 공동체에서의 분리와 시련 및 귀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신화에서 민담을 거쳐 고소설에 이르기까지 단원신화의 구조는 장르를 넘어 지속적인 초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남성과 비인간의 여성이 결연하는 이야기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음은 물론이다. 거타지가 전형적인 경우다. 하지만 거타지를 제외한 이 계열의 주인공들은 그러한 전형성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신화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담은 새로운 방식으로 단원신화의 구조를 구축시켰다. 민담은 주인공이 공동체를 떠나는 일을 폐기하는 대신, 주인공을 고립화시켰다. 이는 단원신화의 구조에서 분리에 해당할 것이다. 고립화된 인물에게 혹독한 시련 대신에 선한 행위, 관용성, 그리고 인내심 등을 요구하는 사건이 제시되고, 주인공은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이것이 민담의 교훈주의와 연결되기도 했다. 그리고 주인공은 결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한 전개는 결연과 관계된 국면만을 집중하여 다른 과정들은 과감하게 단순화하거나 생략하여 서사를 속도감 있게 이끌게 하였다. 그러기에 신화에서처럼 공동체를 벗어나 자신의 영웅성을 증명하는 일도 없다. 주어진 상황을 바람직한 행위 - 민담의 주인공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위 -로 통과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인공은 실수 없이 수행하여 결연에 성공한다.

금기의 제시와 여성의 사라짐은 서사적 의문을 회피하기 위한 서사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아기를 낳은 여인이 그대로 생존하고 있다면, 그녀의 존재에 대한 관심은 작품 밖에 있는 독자의 호기심 속에 계속 남게 된다. 인간과 비인간의 결연이란 자연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비범한 여인을 이야기에서 퇴장시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금기라는 조건이 주

어진다. 금기의 제시와 그 파기는 집단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사에서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차이를 확인시키기 위해 제시된다는 측면도 있다.

IV. 결 론

인간이 비인간과 결연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한 시도가 여러 유형 체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한 체계의 분류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문제는 유형 분류 이후 유형 간의 차별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일단 유형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유형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다음의 도표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여성 + 비인간 남성	남성 + 비인간 여성
인간의 성격	일반적인 여성	고립화된 남성
비인간의 성격	남성은 주로 동물	여성은 선녀, 용녀 혹은 비범한 동물
결합/결연 과정	은밀하게 결합	제 3자를 통해 혹은 직접 결연
결합/결연 결과	뛰어난 인물의 탄생	행복 혹은 비극적인 이별
여성의 행방	알려지지 않음	승천, 용궁으로의 하강 혹은 죽음
지배적인 성	남성성	여성성
서사적 의미	획득	화해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기가 그러한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소재를 다룬 것은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을 통해 자연적 질서와 초자연적 질서 혹은 신성성과 괴이함의 관

계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짙다.

인간 여성이 비인간의 남성과 결합하는 이야기는 아래자형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밤에 남몰래 남성이 출현하여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한다. 남성의 정체는 동물로 확인된다. 하지만 정체가 드러난 동물이 승양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 동물의 변신은 신성의 표식이 아니라 변괴의 결과이며, 그것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 퇴치에 바늘과 실이라는 문화적 산물이 등장하여, 자연력을 제어하는 문화력에 대한 신뢰감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력이 온통 부정된 것은 아니다. 그 결합으로 탄생한 인물이 한 국가를 창건한 청태조이거나 견훤이었고, 귀신을 부리는 비행이었으며, 뛰어난 고승이 되었음을 보면, 자연의 변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생생력을 긍정하는 양가적 태도를 볼 수 있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일을 할 뿐, 그 이후에는 서사에서 사라진다.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확연히 우위에 있다. 이 유형 이야기의 가치는 자연력과의 대결을 통한 승리와 그에 따른 획득에 있다. 인간의 관점에서 영웅의 탄생은 획득에 해당한다. 한편 남성과 여성이 관계한 후에, 남성이 떠나고 여성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워 세상에 내보내는 담화 구조는 동명왕 신화에서의 해모수와 유화 그리고 주몽과 유리 모친과의 결연담 구조와 일치한다. 그 점에서 아래자 류의 이야기는 동명왕 신화의 결연담을 모방한 흔적이 짙다.

인간 남성과 비인간 여성의 경우는 다양한 전개를 보인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힘과 능력에 있어 우위에 있으며, 남녀는 중개자를 통해 만날 수도 있고, 직접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여성이 처한 위기를 남성이 극복시켜주거나 여성의 감추어진 욕망을 남성이 해소해 주는 일이 전제된다. 결합하는 남녀는 반드시 이별을 하게 된다. 그 이별을 위한 주요한 서사적 장치는 금기의 제시와 파기이며, 종족의 보존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

기 위해서라는 또 다른 방식도 사용된다. 이별한 여성은 천상이거나 용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죽음을 택하기도 하여, 자신의 행방을 분명히 한다. 사건의 진행이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여성성이 남성성을 압도한다. 이 유형에서 비인간의 신성성은 여러모로 인정된다.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나 용궁에서 온 용녀는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호녀나 영웅을 낳는 여우 등도 범상치 않는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비인간적인 현상과 사건은 배척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로 화해가 일어난다. 거타지처럼 둘이 잘 사는 것이 가장 평범한 예이다. 비록 헤어진다 해도 그것을 상쇄할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진다. 현실에서 못 이룬 결연의 비극을 지명으로 기억하게 하거나 절을 창건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간극을 넘어 한 단계 승화된 화해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지상계를 떠나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내지는 자연계와 초자연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초자연계가 자연계의 일부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두 세계가 영원히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민담은 주인공을 고립화된 인물로 설정하고,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고립화를 극복하고 결연에 성공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 진행은 신화에서 보이는 단원신화의 구조를 민담이 자신의 방식대로 재구성하여 보인 것으로 민담에 대한 신화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삼국유사』

『구비문학대계』

2. 논저

강진욱, <구전설화의 이물교환 모티브 연구>, 『이화어문논집』 11집, 1990. pp.173-203.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 연구』, (서울, 일조각, 1973), pp.1-302.

김재용, 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서울, 동아시아, 2001), pp.1-383.

라인정, “견훤설화의 구비전승상의 변이와 특성”, 『한국언어문학』 45집, pp.40-69.

라인정, <이물교구설화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8. pp.1-256.

류중선, <조개색시 구혼민담소고>, 『한국민속학』 5호, 1972, pp.49-75.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 나타난 가족의식 연구>, 『한국민속학보』 17집, 1994. pp.15-30.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pp.1-302.

서대석,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고찰>, 『고전문학연구』 3집, 1986. pp.172-205.

성기열, <민담 ‘선녀와 나무꾼’의 한일 비교>, 『신라문화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2. pp.139-166.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47. pp.1-230.

이수자, <우렁색시형 설화의 연구>, 『이화어문논집』 7집, 1984. pp.157-183.

전영태, <나무꾼과 선녀에 대한 통합적 해석>, 『선정어문』 33집, pp.210-249.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p.1-580.

Max Luethi, 『유럽의 민담』, 김홍기 역, (서울, 보림출판사, 2005), pp.1-259.

V. Propp, *Morphology of Folktales*, (Texas, Texas Univ. Press, 1958) pp.1-158.

ABSTRACT

Tales of Conjugal Relations between Human and Non-human Beings:
Types and their Meanings

Kim, Jae-Y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meanings of the tales which deal with conjugal relations between human and non-human beings. The tales has two types : The one tells a woman who has conjugal relation with non-human male(A type) and the other tells a man who has conjugal relation with non-human female(B type).

In the A type, a woman has a conjugal relation with a man who approaches in the night. Nobody except the woman can see the man. In the later, the true character of the man is disclosed as the earth womb or snake etc. which are disappeared or killed after the identification. This affair tells that the speakers who transmit the tales don't accept the supernatural metamorphosis. The child who is born became the historical hero. So the narrative meaning is to obtain the hero.

After the conjugal relation, the man has gone and the woman grows up and sends the child to the outer world. This narrative event is reminded of the mythical theme in the myth of Jumong. In the myth of Jumong, Haemosu leaves Yuhwa on the earth and Yuhwa educates Jumong. Jumong is dispatched to the wider world by his mother.

In the B type, a man has a conjugal relation with a woman whose rank is fairy, dragon's daughter, or animal that is very clever. There are two types in the meeting of a man and a non-human woman : by the mediator and by direct contact. In any case, a man undergo a test that will donate him the bride in the future. Some tales have happy ending. But Most of tales shows the seperation of a man and woman : Because of the violation of interdiction or death. So tales make to reconcile life with death. The harbour is named after the dead bear and the temple is constructed for

the dead tiger. In the story, an isolated man goes through the test and marry the woman, which compare with the pattern of the structure of mono-myth(separation-initiation-return).

Key Words obtain, reconciliation, isolated person, woman who has sexual relationship with non-human male, A man who has sexual relationship with non-human female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0. 31.
게재확정일 : 2007. 12. 5.